

천연가스, 가스공사 투자 확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해외플랜트 투자 확대도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와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석호 한국가스공사 신입사장은 7월26일 성남 분당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일성으로 해외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장석호 사장은 “한국가스공사는 다양한 해외사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지금은 내실을 기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재무와 기술적 역량이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해외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천연가스 부문과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탐사 5개, 개발·생산 10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연계사업 6개 등 2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호 사장은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불안에 대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26>